

美 30년만에 原電 짓는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7일 미국의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970년대부터 사실상 중단된 민간 원자력발전소와 정유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밝힌 에너지 정책은 30년만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환경단체들도 저지 운동에 나설 때여서 한바탕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시내 힐튼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행사에 참석해 “기술 발전을 통해 원전과 정유시설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제 다시 원전 건설을 시작할 때”라고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환경운동 단체들의 반대와 지방 정부의 규제로 민수용 원전은 1973년부터, 정유시설은 1976년부터 신설이 중단돼 왔다.

특히 1979년 펜실베이니아 주 스리마일 섬

미국 핵발전소 분포 현황

상업용 핵 발전 기간(년)

- △ 0~9
- ▲ 10~19
- ▲ 2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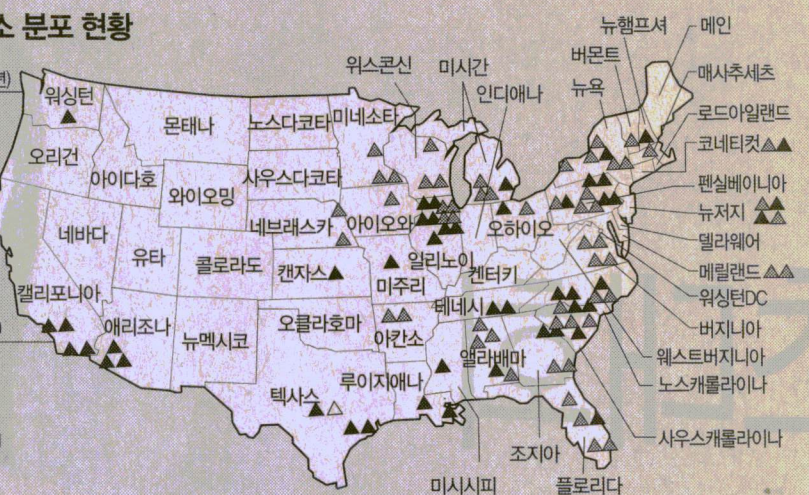
원자로 수

- △ 2
- ▲ 47
- ▲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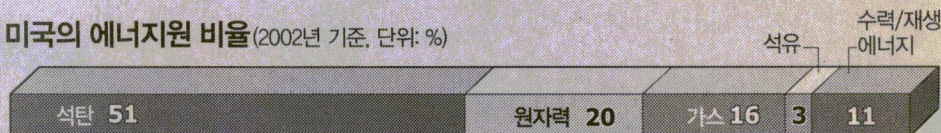
평균 발전량(메가와트)

- △ 1134
- ▲ 1092
- ▲ 779

자료: 미국 핵통제위원회



미국의 에너지원 비율 (2002년 기준, 단위: %)



자료: 국제에너지 학회

부시, 에너지 대외의존도 낮추려 정책 전환

“기술발전으로 더 안전”... 환경단체 반대 밝혀

원전 사고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면서 이미 세워져 있던 35기의 원전 건설 계획도 중단되고 말았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원자력 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약 20%에 불과한 데 비해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량이 78% 이상”이라며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언론은 부시 대통령이 △고유가가 경제발전의 지장을 주고 있고 △자동차 연료비 부담의 급증에 따른 국민의 불만이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사회보장 연금제도 개혁 등 각종 정책의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정유시설 부족이 고유가의 원인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불만이 고려됐다는 관측도 있다.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해리 레이드(네바다) 의원은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의 원전 정책은 어중간한 조치로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확대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에 자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

현재 전세계 핵 발전소

핵 발전소 보유 상위국 (441기 가동중)

미국	104기
프랑스	59기
일본	54기
러시아	31기
영국	23기
한국	20기
독일	18기
캐나다	17기
우크라이나	15기
인도	14기

스리마일 원전사고

1979년 3월 28일 펜실베이니아 주 스리마일 섬의 원전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의 냉각제가 파괴돼 원자로가 녹으면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사고. 이 사고로 반경 80km 안에 있던 200만 명의 주민이 방사능에 노출됐으나 기민한 대응으로 사망자는 없었다.